

7/16/23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14 장 1-21 절

- (스 14:1)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 (스 14: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관주** 스 12:2
- (스 14: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절관주** 스 9:14
- (스 14: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 (스 14: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절관주** 욥 3:11
- (스 14:6)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 (스 14:7)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절관주** 계 22:5
- (스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 (스 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 (스 14: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절관주** 느 3:1
- (스 14:11)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 (스 14: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 (스 14:13)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 (스 14: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 (속 14:15)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 (속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절관주** 사 66:23
- (속 14: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절관주** 사 60:12, 렘 14:3
- (속 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 (속 14:19)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 (속 14: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솔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절관주** 겔 46:20, 속 9:15
- (속 14: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솔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솔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서를 시작한 날이 엿그제 같은데 어느덧 끝맺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겠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끝으로 그 날, 주님 재림의 날, 세상 마지막 날에 벌어질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광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하며 본서를 마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본서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성결케 하실 것이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메세지는 일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날, 주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Justification), 거룩하게 성화시켜 (Sanctification), 영화롭게 (glorification)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 유대 민족이 당할 환란입니다.

(슥 14:1)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슥 14: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때가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발악을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 참성도를 구별해 내십니다.

쭉정이들은 환란과 고난이 닥치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셋째는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열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열국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슥 14: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열국들과 싸워 승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슥 14: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슥 14: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지진을 포함해 여러가지 두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지 40 일 후 500 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세계 모든 이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환난 끝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슥 14:6)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슥 14:7)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빛도 없고 광명한 것도 떠나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환난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속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동해는 바사해를 가리키고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키니 생수가 이렇게 멀리까지 대량으로 흐른다는 것은 신약 시대와 주님 재림시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른다는 것은 성령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속 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은 본래 천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배척했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운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앗수르 등 사람을 의지하지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 내셨고 다시 그들과의 왕되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 임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거짓 신들을 섬겼으나 주님이 재림하신 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슥 14: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게바는 베냐민 지경의 북쪽에 있었고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습니다.

아라바는 평지를 뜻합니다.

게바에서 남쪽 림몬까지 아라바 같이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점이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와 종교가 열국에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본처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 갈 때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라고 모든 지점의 이름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한계를 명시한 것은 앞으로 재건될  
예루살렘의 영광이 본래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 재림시에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슥 14:11)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시 죄가 청산되어졌으므로 저주가 없게 되고 영원한 평안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저주가 없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원수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살이 썩는 전염병에 걸리고, 자기들끼리 원수가 되어 서로 공격함으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슥 14: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슥 14:13)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속 14: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속 14:15)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전쟁에 예루살렘 사람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합세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 만국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속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속 14: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속 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속 14:19)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만물이 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속 14: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솔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속 14: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솔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솔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속된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말 방울과 또 하나님 전에 모든 솔도 다 거룩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솔이 거룩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혈통적인 가나안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 사람을 지칭합니다.

주님 재림으로 세우신 영광의 세계에는 영적 가나안 사람이 전연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거룩한 것들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오염된 것들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심으로써 만물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영광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하며 본서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동시에 죄와 악한 세력의 공격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